

# 일본 국제수산 월간동향

2024. 06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

# 목 차

1. 러시아 극동 정어리 어획량 2배 증가 .....3
2. 대게 허가 갱신에 대한 우려 .....4
3. 스마트화로 판매가격 향상 및 비용 절감 .....5

## □ 17일 현재 청어 어획량 10% 증가

- 올해 러시아 어획량은 17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% 증가한 235만 3900톤으로 증가하였으며, 극동지역은 3% 증가한 178만3600톤으로 특히 정어리가 96% 증가한 6만5800톤으로 성장했다고 러시아 연방 수산청이 20일 발표했다.
- 극동지역에서 가장 큰 명태는 전년과 같은 121만5200톤을 기록했고, 청어는 11% 증가한 26만4700톤으로 증가했음.
- 반면 극동 대구는 12% 감소한 6만2900톤으로 감소했고, 태평양 연어-송어는 62% 감소(2022년 동기 대비 83% 감소)한 961톤에 그쳤음. 연해주 등 북부 해역은 6% 증가한 24만3900톤으로 증가했음.
- 대서양 대구는 4% 감소한 13만1500톤, 대구는 38% 감소한 2만3700톤으로 감소했음.
- 홍연어는 2.2배 증가한 5만1100톤으로 증가했음.
- 한편, 동 청에 따르면 극동 정어리의 경우 다음 달 18일까지 누계로 전년 동기 대비 2배인 8만 300톤에 달하여, 올해 정어리 어획량은 57만9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.

※ 출처: 미나토신문<sup>1)</sup>

1) 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3855> ('24년 06월 25일 검색)

### □ 노르웨이 어업협회,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

- 홋카이도 기저선인망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, 노르웨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대게 어업 허가를 일제히 갱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노르웨이 어업협회는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오랜 기간 어업에 종사해 온 어업인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함.
- 홋카이도 기선 연합회에 따르면,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말 대게 조업 갱신 방침을 발표했다.
  - 기존 허가가 모두 취소되고 새로운 조건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해야 함.
  - 신청은 2020년부터 22년 5월 16일까지의 어업 활동 실적에 따라 제한됨
  - 같은 날 이전에 대게 어선을 새로 건조하거나 대규모 개조하여 어업 허가를 취득한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함.
- 협회는 새로운 투자를 하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어업에 기여해 온 어업인들도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,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상세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
- 또한, 대상 기간 동안 10톤 이상 어획량을 기록한 선박에 대해서도 허가를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.

※ 출처: 미나토신문<sup>2)</sup>

2) 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3766> ('24년 06월 25일 검색)

- 스마트화를 통해 조업 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을 실현한 사례가 나오고 있음.
- 오션 솔루션 테크놀로지(OST)의 '트리톤의 창'은 어민들이 자원을 보호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어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, AI를 이용해 어장과 양어량을 예측하여 젊은 어부들도 베테랑 못지않은 어획량을 달성할 수 있게 함.
  - 라이트하우스의 'ISANA'는 다양한 어업 데이터를 정리하여 선단의 어장 탐색을 지원하며,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스페이스X의 '스타링크'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어선 연계가 활성화될 전망.
  - '트리톤의 창'과 'ISANA'를 활용한 실증 판매로, 어류에 QR코드를 부착해 어민 정보와 지속가능한 조업 정보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.
  - 홋카이도 샤리초의 연어정착망에서는 'Marine Manager + reC.'를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통해 불필요한 조업을 방지하고, 시장 반입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인 시장 대응을 가능하게 함.
  - 시가현의 '코레코' 시스템은 어민들이 손쉽게 어획량을 보고하고 어장 위치를 기록할 수 있게 하여 자원 관리와 어업인의 판단을 지원함.
  - 수산대학의 앱은 어선과 시장을 연결해 어획량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조업 일지 작성의 효율화를 통해 항해당 어획량을 대폭 증가시킴.
  - 라이트하우스의 '후네카르테'는 어선 장비에 센서를 부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손실을 방지하며, 원격으로 기기를 점검할 수 있는 '어선 카메라'도 상품화할 예정.

※ 출처: 미나토신문<sup>3)</sup>

3) 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3750> ('24년 05월 27일 검색)